

제 3 차 아시아건축사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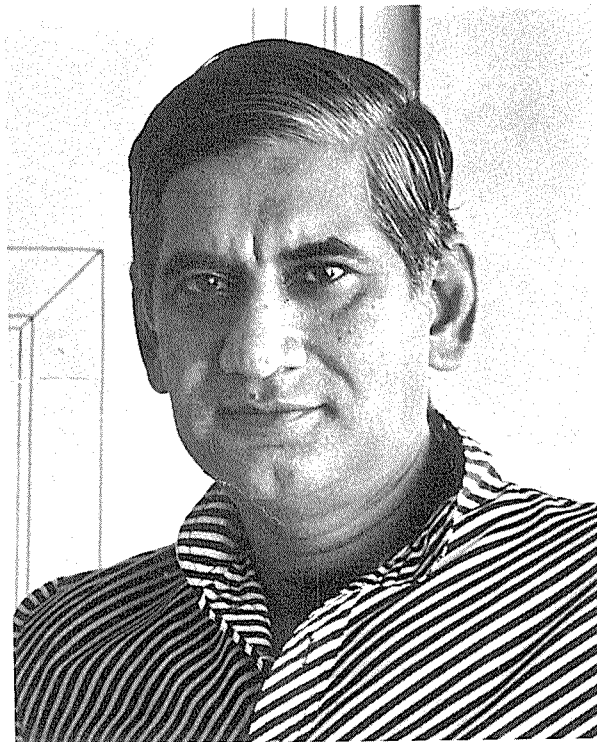
학술토론회 (Conference) 소개 - 2

Introduction of ACA-3 Conference

ACA3 집행본부 기획위원회

토론회2, 첫번째 발표

주제발표 연사 : 찰스 코레아(Charle Correa)  
발표제목 : 공(公)과 사(私) 그리고 성(聖)



Charles Correa

발표연사 소개 :

뭄바이에서 활약하는 건축가 / 계획가이며 그의 작품은 세바르마티의 야쉬람에 있는 마하트마 간디 기념관, 뭄바이와 벵갈로라시의 청사, 메디아 프라데쉬의 주의회건물 등 광범위하다. 그는 기존 시가지로부터 항구를 가로질러 개발되고 있는 인구 이백만의 새뭄바이의 계획을 위한 주 건축가였다.

그는 인도와 외국의 하버드, 엠아이티, 런던대학 등에서 가르쳤다. 그는 1984년 케임브리지 대학의 네루기념 교수로 임명되었다.

코레아는 제3세계의 도시문제들을 다룬 '새로운 환경' (The New Landscape) 의 저자이다. 1974년 타임잡지는 그를 세계의 새로운 지도자 150이라는 표제의 한 사람으로 지목했다. 1980년 미쉬간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84년 영국 왕립 건축가협회 금메달을 받은바 있다. 1987년 인도건축가 협회의 금메달을 수상했다.

발표문 초록 :

우리는 현상계 안에 살고있다. 시간이 시작된 이래 인간은 하나의 다른 세계 즉 그가 매일 경험하고 지속시키고 있는 세계의 저변에 있는 발현되지 않는 세계의 존재를 직감적으로 감지했다. 우리가 이 발현되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의미들을 캐내고 이들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주된 통로는 종교와 철학 및 예술이다. 이처럼 건축또한 발현된 세계보다 더 풍부한 실재의 존재를 표현하는 신화적 믿음에 기초를 두고있다.

인도에서 이들 신화들은 온 천지에 퍼져 있어서 이들은 우리가 살고있는 생활공간의 매우 중차대한 통합적인 부분이다. 비록 사회이론가들, 정치가, 도시계획가들과 그의 많은 사람들간에 우리의 생활공간을 구성하는 공공 및 사적인 영역에 대한 논의들과 자각이 있어왔지만 생활공간의 성의 영역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가로지르고 온 지구의 표피에 존속하는 인간사회를 들여다볼 때 이것은 모든것중 가장 중요한 영역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을 움직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욕구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주제는 이 성의 영역이 아시아의 건축뿐만 아니고 그외의 모든 건축환경에 대한 어떠한 방법의 이해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발현의 세계에 속한 신화적 차원에 개입하여 공공 및 사적인 공간 모두에 측정할 수 없는 차원의 특질을 부여하지만 그렇다고 이 성의 영역이 이 둘 중 어느것에도 속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인류는 언제나 비가시적이고 알려지지 않고 또 알 수 없는

세계에 매료되어 왔지만 아마도 쉬마키가 지적한대로 우리가 돌에서 부터 식물로 그리고 동물로 다시 인간으로 진전하는 자연의 과정에 따라 움직여가는 것처럼 생의 영역은 생명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위계를 반영한다. 돌은 이를 구성하는 재료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만약 돌이 비밀스런 생명을 가진다해도 우리는 알길이 없다). 식물은 새로운 실체인 생명이 첨가된 물리적 재료로 구성되며 이리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로의 여행이 시작된다. 동물은 재료 더하기 생명더하기 의지로 구성된다. 인간에 이르러서는 하나의 실체가 더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각이며 우리는 비가시의 세계안에 있게된다. 당신의 동료 인간속에 있는 필수적인 모든것 - 그의 생각, 감정, 열망, 환희 등 - 은 당신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비가시 세계'는 '가시세계'에 대해 무한정으로 큰 힘과 중요성을 가진다. 인간은 개벽이라 그를 사로 잡고 있는 비가시세계와 신화를 전하기 위해 돌과 흙, 석와 콘크리트 등 가장 물질적인 요소를 사용해왔다.

이 글은 베다철학의 바츠 푸루쉬 만다라로부터 시작하여 이슬람의 낙원(CHAR-BACH)을 거쳐 오늘날 우리를 감싸고 있는 과학, 이성, 발전 등 급세기 이성시대의 신화에서 끝을 맺는다.

### 토론회2, 두번째 발표

주제발표 연사 : 존 하브라켄 (N. John Habraken)  
발표제목 : 사회적 동의로서의 유형



N. John Habraken



#### 발표연사 소개 :

1928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태어났으며 네덜란드 국적을 가졌고 델프트 공과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했다. 현재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살고 있다. 1965년부터 1975년까지 네덜란드의 비영리 건축연구단체인 SAR의 책임자로서 주택과 도시설계에 전문가가 개입하는 새로운 방법을 탐구했다. 그의 연구는 전문 설계자가 건조환경의 변화와 적응과정을 다루기위한 도구로서의 특수한 설계방법론을 창출했다.

1967년에 아인트호벤공과 대학의 요청으로

그곳에 새 건축 및 도시설계학과를 창설하고 초대 학과장으로 부임했다. 1975년에서 1981년 사이 미국 엠·아이·티(MIT) 공대 건축학과장을 역임하였고 이후 그곳에서 연구와 교육을 계속해왔다. 그는 엠·아이·티에서 건조환경에 대한 조절과 변형의 개념에 기초한 건축설계를 위한 일반이론과 방법에 대해 연구해왔다. 그의 최근의 저서로는 "입지변형론"(1983)과 "형태의 모습"(1985)이 있다.

그는 최근에 건축설계, 도시설계 및 제품개발에 체계적인 접근을 유도하는 자문회사인 '건축체계 자문'을 설립했다.

진행중인 과업중 주요한 것은 주택의 인필체계 (Infill System) 와 건축산업을 위한 더고도화된 지능의 씨·에이·디 (CAD) 체계의 개발이다.

**발표문 초록 :**

각 문화는 그 문화권안의 사람들에 친숙한 전통적 주거유형들을 가지고 있다. 이 주거유형들은 어느 건축가에 의해 창안된 것이 아니며 그 사회속에서 점차 형성된 것이다. 대량의 주택건설과 현대기술의 충격속에 우리는 오랫동안 전통적 주거유형의 기능과 질이 더 이상 가치없는 것으로 무시해왔었다. 그러나 이 유형들은 어떤 개별적인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과 조직의 일반적 원리의 산물인 것이다.

최근의 연구는 전통적 주거유형에 대한 우리의 흥미를 부활시켰다. 이 논문은 MIT 건축과에서 여러나라의 젊은 건축가들이 주거유형의 재평가에 심혈을 기울인 연구결과와 보고이다. 이 논문은 말레이시아, 중국, 한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스, 폼페이, 영국, 네덜란드 등 여러나라의 주거유형에 대한 연구에서 이끌어낸 것이다. 일반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적 주거유형은 체계적이다. 한 유형안에서 우리는 기술체계, 공간조직 체계, 양식의 추구하고 장식의 체계등 몇개의 체계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들 체계들은 설명이 가능하다.
2. 한 유형의 체계들은 유연성을 가지며 여러 가능한 해석을 허용한다. 그러므로 각 주거는 거주자의 취향과 대지조건에 따라 적응되고 이 유연성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변화를 허용한다.
3. 유형의 체계들은 매우 다양한 크기의 주거들을 포용한다. 즉 이들은 빈민층 뿐 아니라 부유층의 주거까지도 포용한다. 작은 집들은 통상 큰 집들에서 발견되는 일정한 요소들을 가지지 않지만 동일한 조합의 법칙들을 따른다.

4. 유형의 공간조직은 단지 부분적으로 기능에 좌우된다. 공간조직은 대체로 일반성을 가지므로 매우 다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유를 가진다. 이런 이유때문에 전통적인 주거들은 그들이 지어졌을 때와 매우 달라진 조건들 속에서도 주거가 가능하다.
5. 주거유형의 체계적 법칙들은 형식적으로 기호화 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그집을 짓거나 그속에 사는 사람들의 경험과 감지하는 세계안에 있다. 이것은 집을 지은 사람과 보통 사람들을 연결한다. 그들은 모두 이 유형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서로 통할 수 있다. 이 유형은 공통의 상식이며 따라서 진정으로 한 문화의 일부이다. 전통적인 유형은 참여를 위한 내용을 제공한다.
6. 유형적인 기술 (Type Technology) 이 형식적으로 기호화 되어있지 않고 단지 공장들의 전통적인 부분에 속하므로 이것은 경색된 체계가 아니다. 새로운 기술에의 적용이 가능하다. 새로운 종속체계는 그 유형의 전체성안에 들어 맞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형들은 최신 발전된 체계기술 즉 '열려진 체계'와 일치한다. 7. 주거유형은 도시외곽을 이루는 세포이다. 잘 연구된 주거유형은 도시공간과 도시순환을 위한 원칙들을 제시한다. 이 유형은 건축가들로 하여금 서로 공유하는 원칙들 속에서 활동하도록 하여 좀더 일관성 있는 도시환경을 제안하게 한다.

우리는 전통적 주거유형의 연구로부터 오늘날의 설계를 위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단지 상징성의 이유만으로 표피적인 양식적 특성만을 복제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자동차나 더 많이 요구되는 위생설비와 같은 현대의 필요성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변화하는 가족구조도 무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전통적 주거유형이 제시하는 안정되고 장기적인 의미의 공간구조를 사용하여 우리자신의 문화에 연결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건축적인 방법속에서 체계적일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다.

ACA - 3 대회 추진 기구표

